

제 6차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도와  
학습만족도 및 주관적 학습효과 연구  
—‘인간 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을 중심으로—

김 승 현\* · 정 옥 분\*\*

포항 영일중학교\*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the satisfaction with learning on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 area of the 6th revision of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Education curriculum

Kim, Seung-Hyun\* · Chung, Ock-Boon\*\*

*Youngil Middle School(Pohang)\**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perception of the 6th Home Economics Education curriculum, their learning satisfaction, and the student's perceived learning effect, focusing on the areas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92 middle school students, their parents and 51 Home Economics teachers in Pohang and Seoul.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t test, F test, pearson's product correlation coefficient, and  $\chi^2$  test, Schff post hoc test using the SAS computer program.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that (1) th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heir parent's perception of the 6th Home Economics Education Curriculum, in general, was very positive. (2)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showed high levels of learning satisfaction with the areas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 (3) Student's perceived learning effect on the areas of human development and family relations was considerably high.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정과 교육은 1955년 중학교 교과과정이 제정된 이래로 지금까지 6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변모를 갖추어 왔다. 특히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정교과의 남녀 공통 이수는 교육과정 제정 이후 40년만에 비로소 인정된 결실로서 가정과 교육의 역사상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제 6차 가정과 교육과정은 최초로 독립된 교과로서 남녀 학생이 공통 이수하게 됨에 따라 내용 구성에도 뚜렷한 변화를 가져왔다.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내용 구성을 탈피하고 남학생의 관심 분야와 학습필요도를 고려하여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과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영역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 김숙화<sup>1)</sup>는 제 6차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이용 방안에 대해 가정의 기능을 크게 물자 관리와 인간 관리로 보고 특히 인간관계 측면의 관리를 중시하였다. 즉, 가정은 인간 지고의 애정과 양식을 공급하는 종합 환경이라고 주장하면서 물질과 인간의 종합적 관리와 전체성을 최대로 강조하는 가정과 교육이 되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가정과 교육이 필수 교과로서의 자격으로 남학생에게 실시되고 있는 지금 가정교과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제 6차 가정과 교육과정 개정에서 핵심적으로 부각된 내용 중의 하나인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주안점을 두어 학습자와 학부모 및 교사의 학습내용에 대한 흥미도 및 학습만족도와 학습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오던 기존의 가정교과에 비해 남녀 공통으로 이수하게 되는 제 6차 교육과정에서 가정교과가 얼마나 충실히 대상자의 변화에 따른 내용구성의 변모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해보고 나아가 이러한 가정과 교육의 학습효과를 조사해 봄으로써 여학생만의 교과가 아닌 당당한 하나의 교과로서 그 중요성을 입증받을 수 있고 또 차기 개정에서의 지표가 될 수 있기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은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에 대한 예방책으로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 합당한 가치관 형성 교육으로서 그 중요성이 인정되는 영역이기에 연구대상이 되기에 는 타당

한 분야라 생각된다. 가족가치관이 흔들리고 각종 청소년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가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정생활의 제 국면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하겠다.

따라서 이 영역에 대한 내용 구성을 평가해 봄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내용구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성공적인 6차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가정과 교육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근거하여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제 6차 교육과정에서 남녀 공통 이수 과목이 된 가정 교과에 대한 인식도는 어떠한가?

1-1. 학생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도는 성별, 모의 취업유무별, 학업 성취도별, 지역별 차이가 있는가?

1-2. 학부모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도는 부모의 성별, 자녀의 성별, 학력, 수입정도, 모의 직업유무, 부의 직업종류,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가?

1-3. 학생과 학부모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도는 차이가 있는가?

2)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학습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2-1.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학생의 흥미도 및 학습만족도는 어느 정도이며 성별, 모의 취업유무별, 학업 성취도별, 지역별 차이가 있는가?

2-2.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학부모의 학습내용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며 성별, 자녀의 성별, 학력, 수입정도, 모의 직업유무, 부의 직업종류,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가?

2-3.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교사의 학습내용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며 교직경력별, 지역별, 근무교의 상황별 차이가 있는가?

2-4. 학생과 학부모의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학습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2-5. 학생이 느끼는 흥미도와 학습만족도의 차이는 어떠한가?

3)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주관적 학습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3-1.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주관적 학습효과는 학생의 성별, 모의 취업유무별, 학업 성취도별, 지역별 차이가 있는가?

3-2. 주관적 학습효과 내용 중 정의적 목표와

인지적 목표의 달성은 어느 정도인가?

3-3. 흥미도, 학습만족도, 주관적 학습효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3. 용어의 정의

#### 1)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중학교 1학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제6차 교육과정 중학교 1학년 가정교과서의 첫 단원인 'I. 나와 가정생활'로 한정하여 가정생활의 중요성, 가족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 청소년기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을 그 내용으로 하는 영역으로 정의하였다.

#### 2) 학습만족도

연구대상자가 지각하고 있는 배움에 대한 욕구 충족 정도, 즉 학습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습내용이 최대로 제공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단, 학부모의 학습만족도는 직접 학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배우는 학습내용에 대한 관념적 만족도를 학습만족도라 정의하였다. 교사의 학습만족도는 전공자로서 학습내용의 구성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그 만족 정도를 학습만족도라 정의하였다.

#### 3) 주관적 학습효과

연구 대상자가 개개인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 지각한 학습내용에 대한 학습목표달성 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학습효과관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여야 정확하나 연구 대상자 및 연구시기의 제한으로 실시하지 못했으며 또한,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의 학습효과도 태도 검사와 학업성취도 검사를 통하여 측정되어야 하나 연구대상이 광범위하기에 동일 척도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해 비교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제한점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는 자신이 지각한 지적, 정의적 영역별 학습목표 달성 정도를 주관적 학습효과로 정의하였다.

### 4. 연구의 제한점

1)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도'는 가정교과의 모든 영역 즉,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소비생활과 자원활용', '식생활', '주생활' 등의 5개 영역을 모두 학습한 후라야 가정과 교육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기에 설문시기를 고려해 보면 '의생활' 영역을 학습하지 않은 상태이며 '주생활' 영역은 3학년 내용에 편제되어 있으므로 학습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밝혀 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은 3월 초 첫 수업시간에 행해진 교사의 교과 소개와 6개월 동안의 학생 개인의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도라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6차 가정과 교육에 대한 최초의 평가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중학교 3학년 내용은 제외됨으로써 이 영역에 대한 제 6차 가정과 교육과정의 완전한 평가는 되지 못한다. 단지 1학년 내용에 한정됨을 밝혀두며 2년 후 완전한 재평가가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 II. 관련 연구 고찰

### 1. 제 6차 가정과 교육과정 중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영역의 교육내용

제 6차 교육과정에서 가정은 필수교과로서 1, 2, 3학년 모두 이수하게 되었으며 지도 내용은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로 이루어져 있다. 각 영역은 2개 학년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의 양 및 학생의 발달 단계와 흥미에 따라 식생활은 3개 학년에서, 주생활은 1개(3학년)학년에서 다루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1학년의 '(1)나와 가정생활' 영역은 학생들에게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생각해 보게 하고, 성장급등 현상과 제2차 성징의 발현, 자아 의식과 독립심의 발달 등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을 두려움 없이 수용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는 개인의 행복과 원활한 가정생활이 개인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과 건강한 성장 발달에서 비롯되고, 개인에 대한 가정과 교육의 목표가 개인의 자주성 함양에 있다는 점에서 가정과 교육의 출발점이요, 기반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3학년의 '(1)가족에 대한 이해'영역은 학생들에게 1학년 내용'(1)나와 가정생활'과 고등학교 가정과 내용'(1)가족 관계와 생활 설계'를 연계하여, 가족의 기능과 가족 생활 주기 및 발달과정, 가족원의 상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고, 의사소통의 방법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가족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원이 가정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때에 가정은 인간에게 애정과 안식을 주는 지고의 유일한 환경이라는 절대 가치를 상기해 보면, 이 영역은 가정과 교육의 핵으로서,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고의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 2.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교육적 중요성과 필요도

### 1)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교육적 중요성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서 인간은 가정생활을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능력을 개발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 가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의 발달단계에서 가치관 교육은 매우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며, 더욱이 청소년의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가정 교과목 중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이 크게 대두되어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sup>2)</sup>에서는 "청소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 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자 과정으로서 중요하다. 가정과는 구체적 생활적응 기술을 가르치는 교과로서, 청소년 문제의 오늘과 내일을 염두에 둘 때에 이 영역은 그 필요와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이기열<sup>3)</sup>은 가정을 구성하는 의·식·주 환경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정생활을 원활히 하고 나아가 가정의 안녕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래의 의·식·주 중심보다는 가족과 인간에 대한 연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남녀 청소년들에게 인간의 공동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요청되는 행동윤리 및 가치관, 가족 내의 인간관계의 이해와 수행해야 할 역할 등을 교육하는 것은 자아 정체감 형성은 물론 현재 자신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서의 적응을 돕고, 장래 가족 생활의 설계와 함께 앞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들에 유연하게 대처할 능력을 길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여 김혜선<sup>4)</sup>은 가족분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가족생활 내에서 현명해지고, 행복해지며, 가족의 복지와 자유로운 사회를 향해 다른 사람들과 더 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가정과 교육의 목표라 보고 장혜경<sup>5)</sup>은 Marjorie M. Brown의 가정과 교육과정 모형에 근거한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학습지도안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연구들은 가정과 교육 중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중요성을 잘 말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특히 제6차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필요도

가정과 교육내용 중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이 남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지 기존 논문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상욱<sup>6)</sup>의 연구에서는 7개 문항을 가지고 가정과 교육의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중등학교에서의 남학생에게도 가르쳐야 할 내용의 순서는 가족관계, 자녀양육, 주생활, 소비자 교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과 교육의 필요도를 조사한 김순호<sup>7)</sup>의 연구결과는 여학생의 경우 모든 영역이 4.0만점에 2.0이상 이었고, 남학생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인간발달영역, 가정관리, 가정경제영역, 주거 영역은 2.0이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지만 의류 영역, 식품영양 영역은 2.0이하로 낮은 필요도를 나타내었다. 남녀 중학생의 가족영역 가정과 교육에 대한 필요도, 흥미도, 실생활 적용도를 연구한 한혜숙<sup>8)</sup>의 경우에는 가족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도와 학습필요도는 보통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었고 실생활 적용태도도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은정<sup>9)</sup>의 연구에서도 가정과 교육 중 교과 영역별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 가족관계 영역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 학부모 모두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 꼽았으며 '친밀하고 화목한 가정생활의 중요성' 또한 중요시 되어야 할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의 필요도를 조사한 임애용<sup>10)</sup>의 연구결과는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아동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가족 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중요한 기능이 가족원간의 정서적 기능과 아동의 사회화라는 것과 연결됨으로써 일반 사람들이 가정과 교육이 의·식·주의 측면보다 인간발달 및 심리적인 측면에 좀 더 접근하도록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최정임<sup>11)</sup>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 개인과 가족관계 유지 영역, 인간 발달, 가족 자원관리와 소비생활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정학이 인간을 둘러싼 물질과의 상호작용 측면에 중점을 두었던 단계에서 점차 인간과 인간,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대해 더욱 더 많은 관심

을 집중해야 함을 나타낸 것이라 보여진다.

이상의 선행 연구결과로 보아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중요성 및 필요도는 매우 높게 인식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 6차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중학교 1학년 남녀 학생과 그들의 부모 및 1학년 가정과 담당 교사로 선정하였다. 성별과 지역차를 고려하여 학생 392명, 학부모 337명, 교사 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2. 측정도구 작성

본 논문의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이 설문지는 조사대상에 따라 학생용, 학부모용, 교사용으로 나누어 각각의 연구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보는 척도는 선행연구와 지도교수의 조언을 토대로 가정교과의 남녀 공통 이수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묻는 문항 3개, 가정교과의 성격을 묻는 문항 1개, 가정교과에 바라는 기대 1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학생용 설문지에는 가정과 교육의 수업시수의 적합성을 묻는 문항 1개를 더 첨가시켰다.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학습만족도를 알아보는 척도는 중학교 1학년 가정교과 8종 도서를 비교 분석하여 공통되는 요소를 찾아 교과서의 소단원 제목으로 선택한 14개 문항을 학생용, 학부모용, 교사용의 설문지에 공통으로 사용하였고 내용별로 분류하여 가정생활의 중요성 4문항, 가족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 4문항,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학습효과를 알아보는 척도는 중학교 1학년 가정교과 교사용 지도서를 기초로 하여 정의적 목표와 인지적 목표를 각각 10문항씩으로 선정하였으며 내용별로 분류해 보면 가정생활의 중요성 6문항, 가족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 8문항,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6문항으로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습만족도와 학습효과를 묻는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

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로 학습만족도의 총 점수는 14점에서 70점까지 분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에 대한 흥미도, 학습만족도 및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학습효과의 총 점수는 20점에서부터 100점까지 분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효과가 긍정적이었음을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이 영역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학습만족도의 경우 학생용 .84, 학부모용 .86, 교사용 .88이며, 학습효과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 3. 연구절차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1995년 8월 25일에서 9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용은 담임교사와 가정과 교사의 도움으로 배부 및 회수가 비교적 용이했으나 교사용 설문지는 우편질문지법을 이용했기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낮았다. 학생용과 학부모용은 성별과 지역차를 고려하여 포항지방의 3개 학교와 서울지역의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고 교사용은 서울지역 69개 학교와 포항지역 32개 학교로 총 101개 학교에 우송하였는데 그 중 54부가 회수되어 적합하지 않은 3개의 자료를 제외한 51부를 연구자료로 분석하였다.

#### 4. 자료분석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도는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성별, 모의 직업유무별, 지역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모의 학력별, 학업성취도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F값이 유의한 경우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학습만족도 및 학습효과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화 한 후 조사대상자의 일반 배경 변인별로 t검증, F검증을 실시하였다. 흥미도, 학습만족도, 학습효과와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학습만족도와 흥미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paired t검증을 실시하였는데 학습만족도 점수에서 흥미도 점수를 뺀 값이 클수록 만족하며 “-”값이 될 때는 흥미도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나타낸다고 보고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흥미도와 학습만족도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2검증을 하였고, 학습만족도의 비교를 위해서는 t검증을 하였다. 학습만족도 척도에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에게 질문한 몇 가지 견해를 묻는 문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기술하였다. 학습효과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화 한 후 t검증, F검증을 하였고 사후 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이 연구는 SA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가정과 교과에 대한 인식도

1) 학생들의 가정과 교과에 대한 인식도

가정과목을 남녀 구분없이 공통 이수하고 있는 지금 배울 필요 정도를 질문한 문항은 '꼭 배울 필요 있다'(4점), '배울 필요 있다'(3점), '배울 필요

없다'(2점), '전혀 배울 필요 없다'(1점)를 주어 점수화 하였다. 전반적인 인식정도는 중간값 2.0을 기준시 3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 가정교과의 남녀 공통 이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은 어머니의 학력으로서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인 집단이 2.96점으로 가장 필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졸 어머니의 자녀가 3.15점으로 가장 필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p < .05$  수준에서 유의차를 보였다.

가정과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인식은 <표 1>과 같으며  $p < .05$  수준에서 성별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가정생활의 중요성이 커지니까'에서(남 : 10.5%, 여 : 3.0%)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데 남학생의 경우에는 그 이유가 자신의 절실한 필요성 인식 보다는 시대의 변화로 요구되어지는 것이라는 피동적이고 피상적인 필요성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남녀 중학생의 가정과 교육의 필요 이유에 대한 인식 차이

변인	반응 구분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가정생활의 중요성이 커지니까	가정은 가족공동체이므로 가족 모두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필요하므로	의식주, 육아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여 진로를 계획하기 위해	계		
		N(%)	N(%)	N(%)	N(%)	N	$\chi^2$	
성별	남	35(10.5)	100(29.9)	42(12.6)	19( 5.7)	196	*	
	여	10( 3.0)	70(21.0)	41(12.3)	17( 5.1)			138
어머니 학력	국졸	1( 0.3)	13( 3.9)	10( 3.0)	3( 0.9)	27	8.47	
	중졸	7( 2.1)	43(12.8)	20( 5.9)	9( 2.7)			79
	고졸	28( 8.3)	97(28.8)	46(13.7)	21( 6.2)			192
	대졸	9( 2.7)	18( 5.3)	8( 2.4)	4( 1.2)			39
아버지 학력	국졸	1( 0.3)	14( 4.2)	4( 1.2)	2( 0.6)	21	11.10	
	중졸	5( 1.5)	27( 8.0)	21( 6.2)	5( 1.5)			58
	고졸	26( 7.7)	93(27.6)	36(10.7)	23( 6.8)			178
	대졸	13( 3.9)	37(11.0)	23( 6.8)	7( 2.1)			80
모 직업	있다	13( 3.9)	76(22.7)	41(12.2)	11( 3.3)	141	7.39	
	없다	32( 9.5)	95(28.4)	42(12.5)	25( 7.5)			194
학업 성취도	하	4( 1.2)	12( 3.6)	5( 1.5)	3( 0.9)	24	12.73	
	중하	12( 3.6)	40(11.9)	22( 6.5)	6( 1.8)			80
	중	3( 0.9)	47(14.0)	23( 6.8)	9( 2.7)			82
	중상	19( 5.6)	53(15.7)	21(19.8)	13(12.3)			106
	상	7( 2.1)	19( 5.6)	13( 3.9)	6( 1.8)			45
지역	서울	17( 5.0)	85(25.2)	42(12.5)	13( 3.9)	157	4.42	
	지방	28( 8.3)	86(25.5)	42(12.5)	24( 7.1)			180
계		45(13.4)	171(50.7)	84(24.9)	37(11.0)	337		

\*P<.05

〈표 2〉 남녀 중학생의 가정과 교육에 바라는 기대에 대한 차이

변인	반응 구분	의식주 생활에 대한 기능 및 실기교육 위주로 실시되길 바란다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간교육이 되길 바란다	취미생활 및 예절을 가르치는 교양교육이 되길 바란다	계	
		N(%)	N(%)	N(%)	N	$\chi^2$
성별	남	82(20.9)	94(29.0)	59(15.1)	235	2.32
	여	44(11.2)	73(18.6)	40(10.2)	157	
어머니 학력	국졸	8( 2.0)	15( 3.8)	6( 1.5)	29	4.19
	중졸	27( 6.8)	44(11.1)	18( 4.6)	89	
	고졸	75(19.0)	88(22.3)	60(15.2)	223	
	대졸	18( 4.6)	21( 5.3)	15( 3.8)	54	
아버지 학력	국졸	6( 1.5)	12( 3.0)	3( 0.8)	21	5.09
	중졸	18( 4.6)	30( 7.6)	18( 4.6)	66	
	고졸	64(16.2)	85(21.5)	55(13.9)	204	
	대졸	40(10.1)	41(10.4)	23( 5.8)	104	
부모 직업	있다	42(10.7)	75(19.1)	43(10.9)	160	4.60
	없다	85(21.6)	92(23.4)	56(14.3)	233	
학업 성취도	하	8( 2.0)	16( 4.1)	4( 1.0)	28	15.98*
	중하	21( 5.3)	43(10.9)	31( 7.9)	95	
	중	33( 8.4)	36( 9.1)	32( 8.1)	101	
	중상	46(11.7)	50(12.7)	22( 5.6)	118	
	상	20( 5.1)	23( 5.8)	10( 2.5)	53	
지역	서울	60(15.2)	83(21.0)	44(11.1)	187	0.63
	지방	68(17.2)	85(21.5)	55(13.9)	208	
계		128(32.4)	168(42.5)	99(25.1)	395	

\*P&lt;.05

가정과 교육의 불필요 이유에 대한 인식 문항은 총 응답자 395명 중 58명이 답했다. 그 중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가정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 덜 중요하기 때문에' 10.3%(10명),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8.6%(5명), '가정과목은 여자들만의 과목이므로' 8.6%(5명), 기타 의견으로 '재미 없어서', '다 아는 내용이라서' 3.5%(2명)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부분의 남녀 중학생이 가정과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학교교육을 통해서 배우지 않아도 실생활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류상희(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정과 교육은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

한 반응은 남녀 학생 모두 '음식 만들기, 세탁, 바느질 등 가사실무를 배우는 실기교과' 42.8%(남: 24.6%, 여: 18.2%), '가정과 그 가정을 둘러싼 인간과 문화에 관한 것을 배우는 교과' 42.0%(남: 26.0%, 여: 16.0%), '직업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과' 10.1%(남: 6.4%, 여: 3.7%)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창기 가사실무와 현모양처를 위한 덕성교육으로 시작된 가정과 교육이 건전한 가정생활과 인간 형성 교과로 전환되고 있는 과도기적 위치에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 하겠다.

가정과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실시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응답은 〈표 2〉와 같으며 학업성취도별 p <.05 수준에서 유의차를 보였다. 학업성취도가 중

이하의 집단은 '취미생활 및 예절 위주의 교양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았고, 중상 이상의 집단은 '실기 교육 위주'에 대한 기대를 높게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의 특성상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적극적인 수업참여로 직접 실습을 할 수 있다는 데 흥미를 느끼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은 일반적으로 수업에의 흥미도 상실 및 비적극성을 보이기 때문에 실기 보다는 단지 상식 차원의 교양교육을 원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에는 지금까지의 가정과 교육이 단편 지식의 암기 위주 교육으로 시행되어 왔던 책임도 크다 하겠다.

학생들이 인식하는 적당한 가정교과의 수업 시수는 몇 시간 정도인지를 질문한 결과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학력,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주당 2시간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제 6차 가정과 교육과정인 이수대상자의 단순한 확대에만 의의를 둘 것이 아니라 질 높은 교육, 학습목표에 부합하는 내실있는 가정과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업시수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결과는 제6차 교육과정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어머니의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의 고학력 모의 자녀가 1.96점으로 가장 낮게 인식하며 모의 학력이 낮은 집단일수록 가정교과의 시수를 더 많이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의 학력별 차이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중졸집단과 대졸집단 간에는  $p < .001$ 로써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부모의 학력이 높은 자녀 집단이 가정교과의 적절한 시수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가정교과의 필요도 인식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며 학부모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별로는 지방의 학생들이 서울 지역 학생들보다 수업시수의 확대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p < .001$ ). 서울 지역 학생은 2.16시간을 적절하다고 인식한 데 비해 지방 학생은 2.65시간을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지역 학생은 지방 학생보다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혜택과 정보의 폭이 넓기 때문에 지방학생에 비해 가정교과를 통한 생활교육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가정교과가 가사기술이나 기능 위주의 교육이 된다면 생활수준이 높은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보여진다.

## 2) 학부모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

학부모의 가정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전반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 $p < .01$ ) 아들을 둔 학부모는 3.13점, 딸을 둔 학부모는 3.28점으로 딸을 둔 학부모의 필요성 인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 父'가 가정교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는데 이는 아직까지 가정과목을 '여성들의 과목', '조리, 세탁, 육아 등을 다루는 가사 실무 기능 교육'으로 인식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기인된 것이라 사료된다.

학부모의 가정과 교육의 필요 이유에 대한 인식은 '가정은 가족 공동체이므로 모든 가족이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7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가정생활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13.8%, '의·식·주, 육아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4.1%로 반응했다. 가정과 교육의 불필요 이유에 대한 인식은 총 337명 중 18명이 응답하여 차이를 검증할 수 없었다.

학부모의 가정과 교육의 성격에 대한 인식은 <표 3>과 같다. 학력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력이 높은 고졸, 대졸 집단은 학력이 낮은 국졸, 중졸 집단보다 가정교과를 '인간과 문화에 관한 것을 배우는 교과'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 외의 독립변인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은정<sup>2)</sup>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가정과 교육의 목표 및 기대에 대해 실습보다는 가정생활 및 가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가사기술의 습득보다는 정신문화적인 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보였다.

학부모의 가정과 교육에 바라는 기대에 대한 독립변인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인 견해를 보면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간교육이 되길 바란다.'에 287명(85.2%)이 응답해 절대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은정<sup>2)</sup>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앞으로의 가정교과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결과라 사료된다.

〈표 3〉 학부모의 가정과 교육의 성격에 대한 인식 차이

변인	구분	반응	음식만들기, 세탁, 바느질 등 가사실무를 배우는 실기교과	가정과 가정을 둘러싼 인간과 문화에 관한 것을 배우는 교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교과	취미를 배우는 교과	입시에 출제되는 교과	계	
		N(%)	N(%)	N(%)	N(%)	N(%)	N	$\chi^2$	
성별	남	39(11.6)	96(28.5)	11(3.3)	2(0.6)	2(0.6)	150	1.80	
	여	51(15.1)	122(36.2)	8(2.4)	2(0.6)	4(1.2)	187		
자녀의 성별	아들	43(12.8)	128(38.0)	12(3.6)	2(0.6)	4(1.2)	189	3.85	
	딸	47(14.0)	90(26.7)	7(2.1)	2(0.6)	2(0.6)	148		
학력	국졸	4( 1.2)	8( 2.4)	2(0.6)	0(0.0)	0(0.0)	14	23.01	
	중졸	25( 7.4)	34(10.9)	9(2.7)	2(0.6)	2(0.6)	72		
	고졸	49(14.5)	131(38.9)	7(2.1)	2(0.6)	4(1.2)	193		
	대졸	12( 3.6)	45(13.4)	1(0.3)	0(0.0)	0(0.0)	58		
수입	100만원 ↓	14( 4.2)	37(11.0)	7(2.1)	2(0.6)	0(0.0)	60	14.28	
	100-150	34(10.1)	84(24.9)	4(1.2)	2(0.6)	3(0.9)	127		
	150-200	24( 7.1)	64(19.0)	7(2.1)	0(0.0)	2(0.6)	97		
	200만원 ↑	18( 5.3)	33( 9.8)	1(0.3)	0(0.0)	1(0.3)	53		
모 취업	유	25(13.4)	76(40.6)	5(2.7)	1(0.5)	3(1.6)	110	3.17	
	무	26(13.9)	46(24.6)	3(1.6)	1(0.5)	1(0.5)	77		
지역	서울	36(10.7)	112(33.2)	6(1.8)	2(0.6)	3(0.9)	159	5.29	
	지방	54(16.0)	106(31.5)	13(3.9)	2(0.6)	3(0.9)	178		
계		90(26.7)	218(64.7)	19(5.6)	4(1.2)	6(1.8)	337		

\*p<.05

3) 학생과 학부모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 차이  
 가정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남녀 학생과 그들의 부모와의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남학생과 남학생 母의 인식도는 각각 3.06점, 3.16점을 보여 p<.0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 여학생과 여학생 父의 비교에서도 p<.01수준에서 유의차를 나타냈으며 여학생과 여학생 母의 비교에서도 p<.05수준에서 유의차가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학생보다는 학부모의 필요성 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가정과 교육의 필요 이유에 대한 남녀 학생과 그들의 부모와의 인식차이를 살펴보면 '가정은 가족 공동체 이므로 모든 가족이 가정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 남녀 학생은 '의·식·주, 육아 등

에 관한 기능 습득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를 들었고 그들의 부모는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가정생활의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로 필요 이유를 인식하고 있었다. 남학생과 남학생 父는 p<.05수준에서, 남학생과 남학생 母는 p<.001수준에서, 여학생과 여학생 父는 p<.01수준에서 여학생과 여학생 母는 p<.001수준에서 유의차를 보였다.

가정과 교육의 성격에 대한 남녀 학생과 그들의 부모와의 인식차이를 보면 남학생 부모는 남학생보다 '가정과 그 가정을 둘러싼 인간과 문화에 관한 것을 배우는 교과'라는 인식을 타 내용보다 월등히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남학생은 '음식만들기, 세탁, 바느질 등 가사실무를 배우는 실기교과'라는 인식도 상당히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실기교과'라는 인식을 '인간과 문화를 배우는 교과'라는 인식보다 더 많이 하

〈표 4〉 남녀 중학생과 학부모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차이

분류	반응	남학생	남학생 父	남학생 母	여학생	여학생 父	여학생 母	학생	학부모	$\chi^2$	
		N(%)	N(%)	N(%)	N(%)	N(%)	N(%)	N(%)	N(%)		
가정교과의 필요성	1 꼭 배울 필요가 있다	61(18.8)	19(5.9)	22(6.6)	32(14.2)	2(10.1)	21(8.6)	93(12.7)	84(12.5)	남-남父	4.73
	2 배울 필요가 있다	135(41.7)	62(19.1)	71(21.2)	107(49.1)	39(17.9)	64(26.2)	244(33.3)	236(32.2)	남-남母	8.48*
	3 배울 필요 없다	30(9.3)	6(1.9)	7(2.1)	17(7.8)	0(0.0)	2(0.8)	47(6.4)	15(2.1)	여-여父	12.31**
	4 전혀 배울 필요없다	9(2.8)	2(0.6)	0(0.0)	2(0.9)	0(0.0)	0(0.0)	11(1.5)	2(0.3)	여-여母	7.08
	점수 비교	3.06	3.06	3.16 t=-2.35*	3.06	3.36 t=-4.30**	3.22 t=-2.86**	3.06	3.20	학생-학부모	18.86***
가정교과의 필요 이유	1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가정생활의 중요성이 커지니까	35(12.9)	12(4.4)	12(4.7)	10(5.0)	7(3.5)	13(5.8)	45(6.9)	44(6.7)	남-남父	9.60*
	2 가족원 모두가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	100(36.2)	56(20.3)	75(26.0)	70(35.2)	45(22.6)	62(27.8)	171(26.1)	38(36.3)	남-남母	27.63***
	3 의식주, 육아 등의 기술 습득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42(15.2)	9(3.3)	6(2.1)	41(20.6)	5(2.5)	4(1.8)	84(12.8)	24(3.7)	여-여父	14.57**
	4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여 진로계획을 세우기 위해	19(6.9)	3(1.1)	0(0.0)	17(8.5)	4(2.0)	6(2.7)	37(5.6)	13(2.0)	여-여母	25.40***
										학생-학부모	55.39***
가정교과의 불필요 이유	1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가정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25(52.1)	2(4.2)	3(6.5)	15(79.0)	0(0.0)	0(0.0)	40(52.6)	5(6.6)		
	2 국, 영, 수에 비해 덜 중요하기 때문에	5(10.4)	2(4.2)	0(0.0)	1(5.3)	0(0.0)	1(4.8)	6(7.9)	3(4.0)	남-남父	
	3 실행할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3(6.3)	2(4.2)	4(8.7)	2(10.5)	0(0.0)	1(4.8)	5(6.6)	7(9.2)	남-남母	13.86
	4 가정과목은 여자들만의 과목이니까	5(10.4)	3(6.3)	0(0.0)	0(0.0)	0(0.0)	0(0.0)	5(6.6)	3(4.0)	여-여父	
	5 기타	1(2.1)	0(0.0)	0(0.0)	1(5.3)	0(0.0)	0(0.0)	2(2.7)	0(0.0)	여-여母	
가정교과의 성격	1 음식 만들기, 세탁·바느질 등 가사 실무를 배우는 교과	96(29.6)	19(5.9)	24(7.2)	71(32.6)	20(9.2)	27(11.1)	169(23.1)	90(12.3)	남-남父	13.88**
	2 가정과 그 가정을 둘러싼 인간과 문화에 관한 것을 배움	102(31.5)	58(17.9)	70(20.9)	63(28.9)	38(17.4)	52(21.3)	166(22.7)	218(29.8)	남-남母	26.55***
	3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교과	25(7.7)	9(2.8)	3(0.9)	15(6.9)	2(0.9)	5(2.1)	40(5.5)	19(2.6)	여-여父	10.47*
	4 취미를 배우는 교과	10(3.1)	2(0.6)	0(0.0)	5(2.3)	0(0.0)	2(0.8)	15(2.1)	4(0.6)	여-여母	8.73
	5 입사에 출제되는 교과	2(0.6)	1(0.3)	3(0.9)	3(1.4)	1(0.5)	1(0.4)	5(0.7)	6(0.8)	학생-학부모	40.73***
가정교과에 바라는 기대	1 의식주 생활에 대한 기능 및 실기교육 위주로 실시되길 바람	82(25.3)	8(2.5)	8(2.4)	44(20.2)	3(1.4)	9(3.7)	128(17.5)	28(17.5)	남-남父	43.59***
	2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알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간교육이 되길 바란다	94(29.0)	72(22.2)	88(26.3)	73(33.5)	56(25.7)	71(29.1)	168(23.0)	287(39.2)	남-남母	65.25***
	3 취미생활 및 예절을 가르치는 교양교육이 되길 바란다	59(18.2)	9(2.8)	4(1.2)	40(18.4)	2(0.9)	7(2.9)	99(13.6)	22(3.0)	여-여父	37.36***
										여-여母	25.58***
									학생-학부모	140.51***	

\*p<.05    \*\*p<.01    \*\*\*p<.001

고 있다. 기성세대의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이 '가사실무를 배우는 교과'보다 '인간과 문화에 관한 것을 배우는 교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는

것은 가정과 교육의 성격전향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나 직접 수혜자인 학생들의 인식이 아직도 가정교과를 '단순한 가사실무를 배우는

교과'로 인식한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것은 가정교과가 이론위주의 타교과에 비해 실기 내용이 많고, 가사 실습 및 각종 실기 평가가 성적에 30% 이상 반영되는 교과라는 인식 때문에 실제 이상으로 실기에 더 큰 비중을 가지게 됨으로써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가정교과의 내용이 생활과 밀접한 학문으로서 타교과의 지식위주의 어려운 논리나 법칙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하기에 가정교과를 단순한 음식만들기나 바느질을 배우는 교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실기 평가에 있어서도 기능위주의 평가가 아니라 자아정체감 훈련, 자신의 미래 설계, 가족관계 개선책, 원만한 의사소통 훈련, 내 집 꾸미기 등의 다양한 주제로 실기 평가를 한다면 이러한 인식은 바뀌어지리라 생각된다.

가정과 교육에 바라는 기대에 대한 남녀 학생과 그들의 부모와의 인식차이는 남학생과 남학생 父, 남학생 母, 여학생과 여학생 父, 여학생 母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남학생의 경우 '인간 교육 위주'가 29.0%, '실기 교육 위주'가 25.3%, '교양교육'이 18.2%로 분산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남학생 부,모의 경우 '인간교육'에 대다수가 밀집되어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01$ ). 여학생의 경우 '인간 교육'이 33.5%, '실기 교육'이 20.2%, '교양교육'이 18.4%로 '인간 교육'에 대한 바람이 다소 높은 편이며, '실기 교육'과 '교양교육'의 요구도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학생 부,모와 마찬가지로 '인간교육'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해 학생과 학부모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p < .001$ ).

성별에 관계없이 전체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차이를 <표 4>에서 살펴보면 가정교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학생은 3.06점, 학부모는 3.20점으로  $p < .001$ 수준에서 학부모의 필요도 인식이 더 높았다. 가정과의 필요 이유에 대해서도  $p < .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가정교과의 성격에 대해서도  $p < .001$ 수준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차를 볼 수 있는데 학부모는 '인간과 문화에 관한 것을 배우는 교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학생은 '가사실무를 배우는 교과'로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가정교과에의 기대도 학생과 학부모간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을 위한 가정과 교육의 방향이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인간형성 교육'이 되기를 바란다는 김계순<sup>14)</sup>의 연구와

일치한다.

## 2.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영역의 흥미도 및 학습만족도

### 1) 학생들의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영역의 흥미도 및 학습만족도

#### (1) 흥미도

흥미도에 대한 총 점수는 최저 14점에서 최고 70점 까지 분포 가능하며 중간값 42점을 기준으로 만족도가 높다 또는 낮다라고 해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의 총 점수는 51.23점이며 여학생의 총 점수는 50.75점으로 나타났다. 세가지 분야별로 보았을 때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영역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다음이 '가족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 '가정생활의 중요성'순으로 흥미도를 나타내었다. 성별에 따라 전체 흥미도 점수는 차이가 없지만 세부 영역으로 분석해 보면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분야에서  $p < .01$ 수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이 분야에 대해 흥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부모의 학력별로는 어머니 학력을 흥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버지의 학력은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분야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업성취도에 따라서도 흥미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학업성취도가 아주 높은 학생이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분야에 높은 흥미도를 나타내었다.

#### (2) 학습만족도

학습만족도에 대한 총 점수는 남학생이 50.14점, 여학생이 49.60점으로 나타났으며 학습만족도의 분야별 만족도도 흥미도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 <표 6>을 보면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청소년기 발달 특성'분야에서  $p < .05$ 수준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한 후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5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영역에서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는데 결과는 '청소년기의 심리적 발달'이 23.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기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 15.7%,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 12.4%, '가정

(표 5) 남녀 중학생의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흥미도 차이

변인	내용 구분	가정생활의 중요성			가족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전 체		
		평균	SD	F(t)	평균	SD	F(t)	평균	SD	F(t)	평균	SD	F(t)
성별	남	13.51	3.31		14.12	3.25		23.60	4.60	**	51.23	8.25	0.56
	여	14.03	3.14	-1.55	14.45	3.25	-0.98	22.27	4.36	2.81	50.75	8.16	
어머니의 학력	국졸	13.90	2.45		13.69	3.69		22.97	4.53		50.38	7.92	0.07
	중졸	13.85	3.28	1.05	14.72	3.10	1.72	22.30	4.66	1.21	50.88	7.90	
	고졸	13.83	3.36		14.31	3.19		23.36	4.46		51.51	8.22	
	대졸 ↑	13.00	3.10		13.57	3.44		23.28	5.09		49.85	8.72	
아버지의 학력	국졸	14.33	2.54		15.05	2.86		21.24	4.41		50.62	7.74	0.27
	중졸	14.35	2.84	2.08	14.18	3.11	0.44	22.03	4.76	2.87	50.56	7.78	
	고졸	13.75	3.23		14.23	3.27		23.44	4.40	*	51.41	8.17	
	대졸 ↑	13.17	3.56		14.20	3.41		23.39	4.82		50.77	8.64	
母的취업유무	유	13.69	3.19		14.16	3.37		23.08	4.05		50.93	8.04	-0.22
	무	13.73	3.29	-0.11	14.33	3.17	-0.53	23.04	4.68	0.07	51.11	8.33	
학업성취도	하	13.68	3.62		13.68	4.01		21.61	4.15		48.96	8.47	0.68
	중하	13.85	3.18	0.07	14.33	3.13	0.86	22.08	4.48	2.87	50.98	8.17	
	중	13.68	2.96		14.32	2.93		23.03	4.61	*	51.03	7.56	
	중상	13.75	3.38		14.54	3.35		22.88	4.71		51.17	8.25	
	상	13.57	3.50		13.70	3.43		24.85	4.48		52.11	9.12	
지역	서울	13.68	3.41		14.24	3.31		22.87	4.71		50.79	8.58	-0.61
	지방	13.76	3.09	-0.24	14.28	3.22	-0.13	23.25	4.51	-0.83	51.30	7.84	

\*p&lt;.05 \*\*p&lt;.01

생활에서의 나의 역할' 10.4%, '성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 7.8%, '가정 생활의 중요성' 6.1%, '자녀로서의 나의 역할' 6.1% 순으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는 이유로는 '꼭 알고 싶었던 관심있는 내용이었으므로' 32.9%,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31.6%, '나의 실생활과 관련이 깊어서' 27.1%로 나타났다.

둘째,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서 도움이 되지 못한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가족 유형' 24.3%가 가장 많았고 그 외 '가정의 의미' 9.9%, '가족의 기능' 9.6%, '청소년기의 도덕성 발달' 8.9%, '손자녀로서의 나의 역할' 7.8%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별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서' 35.4%, '관심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35.2%, '실생활과 관련이 없어서' 16.2%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보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론적인 내용이나 개념

정의 보다는 자기 자신이 처하고 있는 상황과 자신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귀착되는 경향이 뚜렷이 보인다.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상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문과 2차 성징의 발현에 따른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보여진다. 이것은 청소년기가 자아정체성 확립의 시기라는 이론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여겨지며 급격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로 인해 자신의 외모와 행동에 몰두해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가 학습상황에 전이되었다고 사료된다.

셋째,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추가해서 배우고 싶은 내용으로는 올바른 이성교제 38.5%, 성교육 32.2%, 가족문제 해결방법 7.5%, 직업교육 7.0%, 결혼과 가족관계 6.5%, 자아정체감 훈련 6.0%, 가족 및 친족 호칭 2.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 단계를 잘 반

〈표 6〉 남녀 중학생의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학습만족도 차이

변인	내용 구분	가정생활의 중요성			가족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전 체		
		평균	SD	F(t)	평균	SD	F(t)	평균	SD	F(t)	평균	SD	F(t)
성별	남	13.50	3.50		14.05	3.28		22.50	4.85	*	50.14	9.26	
	여	14.21	3.03	-1.80	14.08	3.13	-0.10	21.31	4.55	2.43	49.60	8.63	0.58
어머니 의 학력	국졸	14.03	2.58		14.03	3.51		21.83	4.46		49.90	8.56	
	중졸	13.84	3.56	0.54	14.13	3.38	0.25	21.55	4.50	0.56	49.53	8.78	0.46
	고졸	13.98	3.38		14.16	3.07		22.30	4.77		50.44	9.19	
	대졸 ↑	13.35	3.16		13.74	3.48		21.94	5.41		49.03	9.32	
아버지 의 학력	국졸	14.81	2.87		14.71	3.38		21.24	4.97		50.76	9.89	
	중졸	14.00	3.19	0.07	13.91	2.76	0.34	22.09	4.09	0.22	50.00	8.03	0.06
	고졸	13.81	3.37		14.06	3.22		22.13	4.67		50.00	8.97	
	대졸 ↑	13.70	3.46		14.12	3.49		22.04	5.37		49.86	9.75	
부모의 취 업유무	유	14.09	3.30		14.14	3.20		22.51	4.52		50.74	8.79	
	무	13.70	3.36	1.13	14.03	3.25	0.33	21.72	4.93	1.63	49.45	9.21	1.39
학업 성취도	하	14.18	3.68		14.21	4.09		21.89	3.67		50.29		
	중하	13.96	3.17	1.11	13.86	3.13	0.44	21.48	4.47	1.74	49.31		0.76
	중	13.31	3.40		13.89	2.96		22.44	4.71		49.63		
	중상	13.97	3.33		14.36	3.00		21.63	4.78		49.97		
	상	14.36	3.31		14.17	3.84		23.36	5.70		51.89		
지역	서울	13.75	3.35		13.93	3.28		21.61	4.92		49.30	9.29	
	지방	13.97	3.33	-0.63	14.23	3.17	-0.91	22.44	4.62	-1.72	50.63	8.83	-1.47

\*p&lt;.05

영한 결과라 보여진다. 청소년기에는 이성과 성에 대한 호기심이 급증하므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피상적인 성교육이나 성병 예방 등의 부분적인 지식 교육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인간관계 훈련으로서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성의 금기적 문화와 개방적 풍조 사이에서 자신을 지키고 올바른 비판을 가할 수 있도록 명석하고 주체적인 판단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성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실생활 도움 정도는 어떠한지를 질문한 결과 '약간 도움된다' 60.8%, '많이 도움된다' 26.3%, '도움되지 않는다' 9.9%,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3.0% 로써 도움된다는 긍정적 견해가 87.1%를 차지해 이 영역에 대한

실생활 적용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점수화 하면 4점 만점에 3.09점을 나타내고 있다.

다섯째,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이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에 51명의 학생이 응답했는데 '수업이 실제적이지 못하고 지식에만 치우치기 때문' 49.1%,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가정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므로' 21.6%, '용어와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에' 15.7%, '적성에 맞지 않아서' 11.8%, '실생활과 관계없어서' 2.0%로 응답하였다. 여기서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은 이은정<sup>3)</sup>, 류상희<sup>13)</sup>의 연구에서는 도움되지 않는 이유를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도 가정에서 다 배우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수업이 실제적이지 못하고 지식에만 치우치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많았다. 이것은 가정교과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된 평가가 아니라

수업 내용 및 방법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가정과 교육에 대한 전공자 및 교사의 충분한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다. 즉 타교과에 비해 교수, 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및 자료의 빈곤, 충분하지 못한 시설 등 제반 여건과 더불어 수업 시수가 대폭 감소되어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한가지는 남녀 공통 이수의 결과 중학교 1학년 단계에서 여자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 발달 수준이 다소 낮은 남학생들이 생소한 용어와 추상적 개념 이해에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과의 남녀 공통 이수에 대한 개선점을 지적해 주었기에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 2) 학부모의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학습내용 만족도

학습내용 만족도는 최저 14점에서 최고 70점까지 분포하며 평균점수 42점 이상인 경우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전체 학습내용 만족도 점수는 성별로 보면 남학생 父 54.83, 남학생 母 56.83, 여학생 父 56.97, 여학생 母 57.76으로 나타났으며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의 부모보다 여학생의 부모가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학습내용에 대해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생활의 중요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최저 4점, 최고 20점까지로 남학생 母 16.72, 여학생 父 16.69, 여학생 母 16.66, 남학생 父 15.84로 유의 수준  $p < .05$ 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최저 6점, 최고 30점까지며 성별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 母 24.78, 여학생 父 23.91, 남학생 母 23.68, 남학생 父 22.98로 나타났다. 부모의 성별로 보면 '가정생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p < .01$ 수준에서 어머니가 더 높게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자녀의 성별에 따라 비교했을 때 딸을 가진 부모가 아들을 둔 부모보다 더 높은 경향을 띄었다. 특히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분야에서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남학생 부모의 경우 3영역 모두에서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는 아직까지 가정과 교육에 대해 보수적인 생각이나 성차별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가정과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남

학생과 그들의 부모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교과임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력 및 수업에 따른 만족도는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은 집단이 또 수업이 높은 집단이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학습내용 만족도가 높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내용 구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학습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 56.7%, '매우 필요하다' 36.5%, '그저 그렇다' 5.9%, '필요하지 않다' 0.3%로 응답해 배울 필요성에 대해서는 93.2%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를 점수화 하면 5점 만점에 4.28점으로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내용 구성에 대한 만족 여부를 질문한 결과 '만족한다' 55.5%, '매우 만족한다' 6.8%, '보통이다' 35.6%, '불만이다' 2.1%로 나타났는데 이를 점수화하면 최고 5점 만점 중 3.77점을 차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추가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질문한 결과 가정에서의 예의범절 30.6%, 올바른 이성교제 20.5%, 성교육 16.3%, 자아정체감 훈련 11.0%, 가족간의 의사소통방법 6.5%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서 삭제될 필요가 있는 내용으로는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직업교육)'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청소년기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가 가장 많았고 청소년기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에 대해서는 '아직 어리며 호기심을 자극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학생의 발달단계를 학부모는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망망 '어리다'고 취급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교육의 실시가 요청된다 하겠다.

## 3) 교사의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학습만족도

교사의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학습만족도는 <표 7>과 같으며 연령별, 교직경력별, 근무교의 상황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표 7〉 교사의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학습만족도 차이

변인	내용 구분	가정생활의 중요성			가족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전 체		
		평균	SD	F(t)	평균	SD	F(t)	평균	SD	F(t)	평균	SD	F(t)
연령	20대	14.20	2.53	0.06	13.30	3.95	0.25	18.70	5.87	1.15	46.20	11.19	0.54
	40대	14.21	2.53		14.04	2.90		21.00	4.14		49.25	7.64	
	50대	14.16	2.07		14.00	1.87		19.92	2.69		48.38	5.30	
교직 경력	5년 ↓	13.91	2.59	0.39	13.09	3.81	1.22	19.18	5.79	0.81	46.18	10.62	0.86
	6-10년	14.00	2.00		14.55	2.50		19.91	3.96		47.45	6.79	
	11-15년	14.18	2.09		15.27	3.29		21.91	4.50		51.36	8.48	
	16년 ↑	14.72	2.27		13.72	1.99		20.17	3.07		48.61	6.15	
근무지	서울	13.59	1.97	**	13.03	2.56	*	19.03	3.29	*	45.66	6.21	**
	지방	15.18	2.22	-2.71	15.00	2.94	-2.55	21.91	4.85	-2.52	52.09	8.48	-3.13
근무교	남중	14.58	2.71	0.63	13.08	2.54	0.80	19.33	4.12	0.71	47.00	8.56	0.70
	여중	14.56	2.28		14.44	2.59		21.17	4.55		50.17	8.34	
	남녀공학	13.86	1.85		13.86	3.28		20.05	3.92		47.76	7.19	

\*p<.05 \*\*<.01

않았다. 그러나 지역별로는 p<.05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지방에 근무하는 교사의 학습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것은 실제 서울지역 학생의 발달수준이 많은 문화적 혜택으로 인해 가정교과 내용보다 앞서 가기 때문에 지방의 교사보다 서울지역 교사들의 학습내용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내용 만족도를 보충 설명할 수 있는 몇가지 질문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학습내용이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했다고 생각하는나의 질문에 78.5%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이를 점수화하면 최고 4점 만점에 3.02점으로 만족하는 편이다.

둘째,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내용 중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답한 사람은 총7명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의 발달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그 이유로 들었다.

셋째,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 중 불만스러운 내용 및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정생활에서의 나의 역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반적인 제시에 그쳤다는 견해를 보였고 ‘청소년기의 신체적, 생리적 발달’에서는 남녀를 같이 놓고 가르칠 때 지나친 호기심과 수치심을 나타내었다는 반응이 있

었다. 또,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 내용에서는 이론적인 면이 치중되어 있고 문제 해결력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넷째,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추가 내용으로는 예절교육, 가족간의 의사소통방법, 성교육, 자아정체감 훈련, 가족 친족 호칭, 올바른 이성교제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3가지 하위 분야별 효율적 학습형태를 질문한 결과 ‘가정생활의 중요성’ 단원은 토론학습 72.5%, ‘가족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 단원은 역할놀이 66.7%, ‘청소년기의 발달특성’ 단원은 시청각 교재 사용 80.4%로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다.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적용 실태를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그 내용의 특성에 관계없이 전통적인 교수법인 ‘강의법’이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이렇게 이상적인 수업 형태와 실제 수업 형식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교사들은 ‘수업시수의 부족’을 들었고, 그 다음이 ‘학교의 교육환경 및 시설부족’을 들었다.

일곱째, 가정과 교육의 적당한 수업시수에 대한 견해는 주당 3시간이 74.5%로서 가장 많았고, 4시간이 13.7%, 2시간, 5시간이 각각 5.9%를 차지해 거의 모든 교사들이 수업시수의 증가를 원하고 있

다고 보여진다. 이를 점수화 하면 3.1시간으로 이같은 결과는 이점1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6차 교육과정보다 2배 이상의 수업시수를 확보했던 5차 교육과정에서 조차 단위 시간의 부족함을 지적했는데 50%이상이 감축된 6차 교육과정에서는 당연한 결과로 사료된다.

여덟째,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을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용어와 개념 설명을 학생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가 35.3%, '중학교 1학년 수준에 적절한 성교육 기준이 없어 그 한계가 모호했다'가 33.3%, '정의적 목표보다 인지적 목표에 치우칠 우려가 크다'에 19.6%, '청소년기의 생리적 변화에 대한 내용이 오히려 성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시키지 않을까 우려되었다'가 11.8%로 나타났다.

아홉번째,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남녀 학생의 학습성취도에 차이가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5-10점 정도 높게 나타났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7.8%로 가장 많았고 '별 차이 없었다'는 비율이 18.2%로 나타났다. 그 차이 이유에 대해서는 '언어 이해력에 대한 발달 수준이 다소 늦고 빠름의 차이'라는 견해가 47.1%였고 '학생 자신들의 가정과목에 대한 선입견'이라는 견해는 23.5%, 기타 '수업시간의 태도 및 집중력 차이', '학습의욕에 대한 차이'라는 견해도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정리해보면 가정과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주입식 강의방식에서 벗어나 토의방법, 실험실습 방법, 역할 놀이, 컴퓨터 보조방식 등과 같은 새로운 교수방법을 제안하고 있지만 시수에 비한 교육양이나 교육제도, 교육시설과 같은 문제점은 현직 교

사의 수업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개념의 정의가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이 영역의 교수방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고 기존의 교사용 지침서는 이론적 지식의 나열에 급급해 있어 이론에서 실천에 이르게 하는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sup>16)</sup>

#### 4) 학생과 학부모의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학습만족도 차이

남녀 학생과 학부모간의 학습만족도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남학생과 남학생 父, 남학생 母 비교시  $p < .0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가정생활의 중요성' 및 '가족원의 위치와 역할'에서는 남학생 母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남학생 父, 남학생 순으로 나타나 학생보다는 부모가 더 학습내용에 대해 만족도가 높다고 보여진다. 여학생과 여학생 父, 여학생 母 간에도 3가지 하위 영역 모두에 대해  $p < .001$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와는 달리 여학생 父, 母는 유사한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성별에 구별없이 학생과 학부모 집단의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학습만족도 차이는 <표 9>와 같다. 3개의 하위 영역 모두에서  $p < .001$ 수준에서 학부모의 학습내용 만족도가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학부모의 높은 교육에의 열의와 관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여겨진다. 학습경험 후의 만족도 점수와 단지 학습내용의 제목들만 읽고 만족도를 비교한다는 것에 우리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학생보다는 학부모의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학습내용 만족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표 8> 남녀 중학생과 학부모간의 학습만족도 차이

내용	가정생활의 중요성				가족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전 체			
	평균	SD	F	Scheffe test	평균	SD	F	Scheffe test	평균	SD	F	Scheffe test	평균	SD	F	Scheffe test
남학생	13.60	3.50	***	C	14.05	3.28	***	B	22.50	4.85	2.84	B	49.38	9.26	***	C
남학생 父	15.82	2.41	44.77	B	15.98	2.79	27.74	A	22.93	4.27		BA	54.73	7.43	25.78	B
남학생 母	16.76	2.28		A	16.48	2.27		A	23.78	4.07		A	57.02	7.93		A
여학생	14.21	3.03	***	B	14.08	3.13	***	B	21.31	4.55	***	B	49.60	8.63	***	B
여학생 父	16.69	2.54	31.60	A	16.36	3.06	20.83	A	23.92	3.24	22.61	A	56.97	7.63	36.94	A
여학생 母	16.66	2.10		A	16.32	2.88		A	24.78	3.80		A	57.76	6.87		A

\*\*\* $p < .001$

〈표 9〉 남녀 중학생과 학부모의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영역에 대한 학습만족도 차이

내 용	학생		학부모		t
	M	SD	M	SD	
가정생활의 중요성	13.87	3.34	16.47	2.34	-12.34***
가족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	14.09	3.22	16.28	2.85	-9.77***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22.05	4.78	23.82	3.94	-5.50***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	50.00	9.05	56.57	7.51	-10.72***

\*\*\*p&lt;.001

〈표 10〉 흥미도와 학습만족도 간의 차이 분석

영역	구분	세부 내용									전체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		
		가정생활의 중요성			가족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M	SD	t	M	SD	t	M	SD	t	M	SD	t
성별	남	0.80	2.94	0.42	-0.07	2.92	-0.36	-1.10	4.32	-3.90***	-1.09	6.73	-2.47*
	여	0.18	2.32	0.96	-0.36	2.40	-1.89	-0.96	3.21	-3.76***	-1.15	0.60	-2.56
어머니의 교육수준	국졸	0.14	1.94	0.38	0.34	2.29	0.81	-0.97	3.91	-1.33	-0.48	4.40	-0.59
	중졸	-0.16	3.12	-0.03	-0.58	2.52	-2.19*	-0.75	5.19	-1.37	-1.35	7.34	-1.74
	고졸	0.15	2.74	0.80	-0.16	2.92	-0.80	-1.06	3.67	-4.32***	-1.07	6.45	-2.48*
	대졸	0.35	2.43	1.06	0.17	2.35	0.52	-1.33	2.92	-3.36***	-0.81	5.48	-1.09
아버지의 교육수준	국졸	0.48	2.86	0.76	-0.33	2.29	-0.67	0	4.57	0	0.14	6.50	0.10
	중졸	-0.35	2.64	-1.07	-0.27	2.40	-0.92	0.06	3.97	0.12	-0.56	5.34	-0.85
	고졸	0.06	2.79	0.33	-0.17	2.81	-0.85	-1.31	4.05	-4.62***	-1.41	6.84	-2.95**
	대졸	0.53	2.63	2.05*	-0.09	2.86	-0.31	-1.36	3.62	-3.82***	-0.91	6.12	-1.52
어머니의 직업유무	유	0.39	2.82	1.77	-0.01	2.62	-0.06	-0.56	3.50	-2.04*	-0.18	6.03	-0.38
	무	-0.03	2.68	-0.17	-0.30	2.79	-1.64	-1.32	4.21	-4.79***	-1.65	6.57	-3.84***
지역	서울	0.07	2.25	0.42	-0.30	2.69	-1.55	-1.26	3.38	-5.09***	-1.49	5.85	-3.49***
	지방	0.20	3.11	0.94	-0.05	2.75	-0.28	-0.81	4.45	-2.63***	-0.66	6.85	-1.40
학업 성취도	하	0.50	2.71	0.97	0.54	2.94	0.97	0.29	3.43	0.44	1.32	6.38	1.10
	중하	0.11	2.90	0.35	-0.46	2.68	-1.68	-1.32	4.23	-3.03***	-1.67	5.98	-2.73**
	중	-0.38	2.71	-1.40	-0.43	2.44	-1.75	-0.59	4.09	-1.46	-1.40	6.74	-2.08*
	중상	0.23	2.48	1.00	-0.18	2.68	-0.72	-1.25	3.64	-3.75***	-1.20	5.67	-2.31*
	상	0.79	2.95	1.96	0.47	3.20	1.07	-1.49	4.25	-2.55*	-0.23	7.76	-0.21
전체 학생	0.14	2.74	1.01	-0.17	2.72	-1.26	-1.02	3.98	-5.10***	-1.06	6.40	-3.28**	

\*p&lt;.05

\*\*p&lt;.01

\*\*\*p&lt;.001

결과는 가정과 교과에 대한 인식과도 상관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학생은 '의·식·주의 가사 실무를 배우는 실기교과'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던 반면 학부모는 '가정생활을 둘러싼 인간과 문화에 관해 배우는 교과'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이 영역에 대한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고 볼 수 있으며 이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이 영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의 발달을 수용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해야하는 발달 과업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한데서 초래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실천행동 제시와 자신의 정체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진단표, 다양한 가족관계의 이해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5) 흥미도와 학습만족도의 차이

제 6차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 구성이 학생들의 흥미를 어느 정도 만족시켰는지 평가해 보기 위해 학습만족도의 점수에서 흥미도 점수를 뺀 점수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는데 전반적으로 6차 교육과정의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내용 구성은 학생의 흥미도에 만족스럽게 부응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표 10>의 t 값은 독립변인간의 차이가 아니라 학습만족도와 흥미도 점수를 비교한 값이다. t 값의 유의미도를 통해 교과내용의 만족 또는 불만족 정도를 알 수 있다. 표에서 보듯이 남·여 학생 모두 전반적으로 학습만족도에 비해 흥미도가 더 높았으며 특히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 부분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학력이 높은 집단의 자녀들은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 부분

에 대해 흥미도 만큼 학습 내용 구성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부모의 학력이 높은 집단이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학습필요도를 높게 인식하며 이러한 경향이 자녀에게 영향을 준 결과로 보여진다. 특히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 분야에 대해서만 유의한 차이가 뚜렷한 것은 학습에 대한 기대치가 타 분야보다 월등히 높았기에 그 만큼 충족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6차 가정과 교육과정의 내용이 개선의 여지를 안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주관적 학습효과

1)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주관적 학습효과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주관적 학습효과는 <표 11>과 같다.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

<표 11> 중학생의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주관적 학습효과 차이

변인	구분	내용			가정생활의 중요성			가족원으로서의 위치와 역할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전 체			
		평균	SD	F(t)	평균	SD	F(t)	평균	SD	F(t)	Scheffe test	평균	SD	F(t)	Scheffé test			
성별	남	21.66	4.30		29.71	4.30		22.30	5.00			73.66	12.13					
	여	22.27	4.21	-1.38	30.03	4.21	-0.56	22.56	4.76	-0.53		74.85	12.64	-0.94				
어머니의 학력	국졸	20.97	3.95	.66	28.62	5.38	.95	21.55	5.00	1.75		71.14	12.40	1.38				
	중졸	21.84	4.25		29.35	5.09		21.54	4.62			72.73	11.92					
	고졸	22.11	4.15		30.15	5.63		22.78	4.89			75.05	12.11					
	대졸↑	21.78	4.95		29.93	5.85		22.72	5.14			74.43	13.49					
아버지의 학력	국졸	21.57	4.25	.09	29.00	5.87	.50	20.62	4.94	2.37		71.19	13.10	1.03				
	중졸	21.77	3.79		29.26	4.55		21.56	4.53			72.59	10.82					
	고졸	22.99	4.03		29.97	5.28		22.50	4.81			74.46	11.48					
	대졸↑	21.95	5.01		30.08	6.47		23.12	5.14			75.14	14.40					
부모의 취업유무	유	21.66	4.18		29.65	5.28		22.16	4.85			73.58	11.97					
	무	22.02	4.35	-0.59	29.95	5.72	-0.53	22.58	4.94	-0.81		74.55	12.57	-0.77				
학업 성취도	하	21.54	4.38	.79	28.36	5.97	.86	20.82	4.52	2.58	B	70.71	13.30	1.46	B			
	중하	21.66	3.80		29.74	5.22		21.41	5.16	*	BA	72.81	11.75	*	BA			
	중	21.74	3.86		29.55	4.79		22.74	4.55		A	74.03	10.40		BA			
	증상	21.97	4.58		30.30	5.67		22.91	4.48		A	75.17	12.31		BA			
	상	22.83	5.02		30.26	6.74		23.25	5.74		A	76.34	15.48		A			
지역	서울	22.00	4.43	.35	29.93	6.06	.35	22.56	5.14	.61		74.49	13.36	.52				
	지방	21.85	4.13		29.74	5.01		22.26	4.67			73.85	11.30					

\*p<.05

까지 중 74.17점으로 다소 높은 경향을 띄며 학업 성취도에 따라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이 '청소년의 발달 특성' 내용에 대한 주관적 학습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2)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의 주관적 학습효과 정도

학습 목표 중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에 대한 주관적 학습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척도 구성시 정의적 영역 10문항, 인지적 영역 10문항으로 제작하였다.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의 주관적 학습효과는 <표 12>와 같다. 학업성취도가 '상'인 학생은 정의적 영역에서는 '중상'층 학생에 비해 실제 적용 점수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지만 '하'의 학생과는 차이가 나며, 인지적 영역에서는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학습목표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의 주관적 학습효과 점수는  $p < .001$  수준에서 정의적 영역의 학습효과

점수가 인지적 영역의 학습효과 점수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지도목표에 부응한 교육적 효과라 볼 수 있다. 이론에 그치는 단순한 지식 이해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적용하려는 태도와 가치관 형성 및 긍정적 자아개념을 갖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한 결과라 사료되며 제 6차 가정과 교육에의 밝은 전망을 기대하게 한다.

3) 흥미도, 학습만족도, 주관적 학습효과의 상관관계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흥미도, 학습만족도, 주관적 학습효과의 관계는 <표 13>과 같다. 흥미도와 학습만족도는 .73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흥미도와 주관적 학습효과는 .56의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학습만족도와 주관적 학습효과는 .54의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이를 학습상황에 도입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욕구를

<표 12> 정의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의 주관적 학습효과

변인	구분	정의적 영역 학습효과				인지적 영역 학습효과					
		M	SD	F(t)	Scheffe test	M	SD	F(t)	Scheffe test		
성별	남	33.77	6.54	-0.74		35.89	6.71	-0.99			
	여	38.29	7.06			36.57	6.66				
母학력	국졸	36.35	6.98	1.32		34.79	6.28	1.15			
	중졸	37.34	6.15			35.40	6.87				
	고졸	38.50	6.87			36.54	6.42				
	대졸	37.74	6.84			36.69	7.49				
父학력	국졸	36.24	6.93	1.23		34.95	7.01	0.86			
	중졸	36.97	6.27			35.62	5.68				
	고졸	38.37	6.30			36.09	6.50				
	대졸	38.20	7.70			36.94	7.48				
母직업 유무	있다	37.63	6.43	-0.87		35.94	6.62	-0.55			
	없다	38.23	6.95			36.32	6.73				
학업 성취도	하	36.04	6.98	1.22	B	34.68	7.11	1.84	B		
	중하	37.63	6.66			BA	35.18			6.37	B
	중	37.63	5.70			BA	36.40			5.94	BA
	중상	38.81	6.80			A	36.36			6.58	BA
	상	38.43	8.15			BA	37.91			8.13	A
지역	서울	38.06	7.40	0.24		36.43	6.93	0.71			
	지방	37.90	6.07			35.95	6.43				

\* $p < .05$

지속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 학습법을 개발, 적용한다면 학습만족도는 커질 것이며, 이러한 학습에의 만족도는 학습자의 흥미도를 유지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학습효과도 향상될 것이다.

(표 13) 전체 흥미도, 학습만족도, 주관적 학습효과의 상관관계

척도	흥미도	학습만족도
흥미도		
학습만족도	0.73***	0.54***
학습효과	0.56***	

## 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제6차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남녀 공통 이수에 대한 인식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다수가 가정과 교육의 성격과 남녀 공수의 필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정교과를 '의·식·주의 단순 실무 기능 교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도 일부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고학력 부모 집단에서 높았음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것은 가정교과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녀 공통 필수 교과로서의 첫 출발 시점에서 가정교과의 발전 방향을 뚜렷이 제시하고, 새로운 인식 전환이 가능하도록 가정학자 및 가정과 교육 관계자의 부단한 노력이 가속화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학부모의 가정교과에 대한 인식 및 기대는 의·식·주 위주의 물질 관리 교육이 아니라 정신 문화적인 인간 교육으로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차기 개정에서는 이러한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가정교과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내용 확대 및 가치관 교육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정과 교과 중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흥미도와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흥미도와 학습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며 이

것은 6차 가정과 교육 내용 구성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흥미도와 만족도의 차이 분석 결과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분야에 대해서는 흥미도 만큼 학습내용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결과로 보아 이 영역에 대해서는 좀 더 내용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의 경우 이 영역에 대한 학습만족도는 꽤 높게 나타나 가정교과에 대한 기대 방향을 제시해 주기는 하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올바른 발달 단계 이해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부모 교육의 확대 실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에 대한 학생 스스로의 학습효과 평가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정의적 영역에 대한 학습효과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나 매우 바람직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학습효과 결과는 흥미도, 학습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는데 이를 학습상황에 도입해 다양한 수업방법과 교재 개발로 흥미를 유발시키고, 최대의 학습만족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특히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 높은 수업을 하기에는 현행의 수업시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학생과 교사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과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업시수의 확보가 요청되며, 이와 함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이 시급함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가정과 교육이 발전을 하느냐, 퇴보를 하느냐는 제 6차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습자의 단순한 확대가 교과의 위상을 높여 주지는 못한다.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중요한 과목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때라야 교과의 위치는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성을 구분하지 않는 교과로서 남녀 학생 모두에게 흥미롭고 유익한 과목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때 비로소 가정교과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상의 결론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은 중학교 가정교과의 가장 기초가 되는 영역으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신체적 발달, 사회 심리적 발달, 성적 발달의 과정과 변화를 이해한 후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생활의 변화를 이해하여 학생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진정한 가족생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영역의 목표임을 고려할 때 용어의 개념이해에 그치는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는 다양한 교수법 및 수업원리의 적용으로 다각도의 사고를 통한 자아발견과 정체감 확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2. 남녀 중학생들의 가정과 교육 이수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는 나아가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해서도 실시됨이 바람직 할 것이다. 가정과 교육의 성격 및 내용에 대한 인식이 종래의 '단순한 의·식·주 생활에 관련된 기술 습득'이 아니라 '가정생활의 중요성 및 인간발달'위주의 정신적인 면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서서히 전환됨에 따라 가정과 교육은 더 이상 여학생만의 교과가 아님을 인식하고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내용 구성으로 남녀 구분없이 실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영역은 대학의 교양과목으로도 확대, 실시됨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본 연구를 함에 있어 가정과 교육 중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가 타영역의 연구자료보다 매우 적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영역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에 비하면 이 영역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다각적 차원에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가정과의 타영역에 대해서도 본 연구와 같은 조사 분석이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하여 가정과 교육과정의 구성이나 지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남녀 공통이수의 필수과목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각 영역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되어진다.

## 참 고 문 헌

- 1) 김숙희(1992), 가정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교육방안, 제4차 학술대회 주제 강연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지, 4(1), 97-99.
- 2) 교육부(1994),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 3) 이기열(1991), 21세기를 향한 가정과 교육의 방향,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지, 3(1), 179-188.
- 4) 김혜선(1987), 중등학교에서의 가정과 교육, 87년도 춘계학술대회, 대한가정학회지, 25(2).
- 5) 장혜경(1994), Marjorie M.Brown의 가정과 교과과정 모형에 근거한 인간발달 및 가족관계 영역의 학습지도안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6) 신상욱(1986), 가정교육 연구의 접근방향, 대한가정학회지, 24(2), 165-168.
- 7) 김순호(1989), 고등학교 가정과 교육내용의 필요도에 관한 조사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한혜숙(1992), 남녀 중학생의 가족 영역 가정과 교육에 대한 필요도, 흥미도, 실생활 적용도의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이은정(1992), 중학교 가정과 교육에 대한 인식 및 교과 영역별 필요도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임애용(1993), 고등학교 남학생에 대한 가정과 교육의 필요도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최정임(1994), 가정학 관련 교양과목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조현주(1992), 중학생들에 대한 가정과 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13) 류상희(1993), 가정과 교육에 대한 남녀 중학생의 인식과 관련 변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김계순(1993), 제6차 가정과 교육과정에 대한 남녀 중학생들의 학습내용 필요도 조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이정·김경애(1992),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지, 4(1), 43-56.
- 16) 김영희(1994), 중학교 가정 새 교과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 하계 학술대회 자료집, 57-71.